

<p>(「再請합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表決로 들어가겠습니다. 地下鐵電動車 優秀國產品 使用要求에 관한 請願에 대해서 反對하시는 분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하는 議員 있음) 地下鐵電動車 優秀國產品 使用要求에 관한 請願에 대하여 反對하시는 議員님 계시면……. (「保留하는 意見에 대해서 贊反을 물어 보시라고요」하는 議員 있음) ○金鍾雄議員 議長님, 補充發言을 좀……. ○副議長 趙貞順 가만히 계세요. 李迎春議員님의 保留要請에 대하여 意見を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雄議員 대단히 죄송합니다. 本議員의 說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補充說明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행한 모든 地下鐵電動車에 있어서 購買契約書에 보면 契約條件에서 반드시 國產品을 使用하는 條件附加 있었습니. 國產品을 쓰라는 條件附加 아닌 우리 서울시에서 모든, 商工部의 指針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특히 우리 地下鐵建設本部나 地下鐵公社에서 發注를 냈을 때 그 部品製作會社의 능력이나 또한 그 部品會社의 지금까지의 經歷 등을 調查하여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事後 시방 내지 사양서와 같이 事後 承認을 하는 制度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을 때 價格面에서 海外業者들이 엄청난, 처음에는 덤핑으로 들어와서 그 部品을 한 번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비싼 價格으로 그 部品을 계속 쓰지 않으면 우리의 電動車가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128輛의 物件을 發注할 때는 반드시 國産化를 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價格으로 供給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趣旨와 또한 現 鐵道廳과 1·2號線에서는 우리 國產品으로써 아무 이상없이 쓰고 있는데 새롭게 發</p>	<p>注하려는 128輛에 대해서 大財閥企業에서 굳이 外製를 써야 되겠다는 計劃을 세우고 있기에 이것을 좀더 우리 市民의 代表인 우리 市議會에서 힘을 주자는 뜻에서 이 請願을 긍정적으로 交通委員會에서 滿場一致로 받아들였습니다. 우투과이라운드나 여기하고는 關係없이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施行하고 있는데도 이상과 같은 條件으로써 해 나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더 再促求하는 뜻과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비단 電動車뿐만 아니라 모든 産業에 있어서 우리 議會 전체에서 관심을 갖자는 뜻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趙貞順 이 條件에 대해서 李迎春議員님께서 諒解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地下鐵電動車 優秀國產品 使用要求에 관한 請願에 대해서 交通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內容과 같이 市議會 意見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지하철전동차우수국산품사용요구청원에관한 심사보고서 1993.2. 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청 원 자 : 경기도 안산시 원서동 770-2 (주)유진기공산업 대표 이창목 ○소개의원 : 박하영의원 ○접수일자 : '92. 8.19 ○회부일자 : '92. 8.22 ○상정일자 -제57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92. 10. 5)상정</p>
---	---

- 제60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93. 2. 24)상정, 의결

2. 청원요지

○당사는 상공부로부터 '80.4.17 철도차량 부품생산 전문업체로 지정되어 전동차용 제동제어 장치등 관련부품 국산화에 성공 하였으며

○현재 철도청과 서울, 부산 지하철공사 및 차량제작 3사(대우, 현대, 한진)에 납품중임

○지난번 동일노선(과천선)에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청에서 발주한 138량 전동차에는 당사의 제품사용이 결정되었으나

○'92.12월 지하철공사에서 발주한 전동차에는 현대정공(주)측에서 국산품인 당사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독일에서 수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산품애용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 사후 보수, 부품조달의 기동성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임. 따라서 당사의 부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요구함.

3. 취지설명 요지(취지설명: 박하영의원)

○서울시지하철공사에 납품예정인 과천선 전동차에 사용될 제동용품에 대하여 청원인이 생산하는 제품은 철도청, 서울시 지하철, 부산시 지하철등에 납품되고 있어 이미 품질이 인정되었고, 동 제품을 위 전동차에 사용할 경우 예산의 절감, 부품의 국내조달로 정비·보수의 신속과 원활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국내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수한 국산제동용품을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태호)

○지하철공사에서 "현대정공(주)"에 발주한 전동차는 신형 직교류 겸용 전동차로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제어 방식인(VVVF SYSTEM)최첨단 시스템으로 아직 국내기술 축적이 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정공(주)측 결정이 타당하다고 하나, 동일노선에 투입할 철도청 발주분은 당사의

부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함.

○"현대정공(주)"은 성능, 품질, 차량경량화 및 가격면에서 우위에 있는 독일의 KNORR SYSTEM을 선정하였다고 하나, 이미 당사는 국산화에 성공하여 기존 전동차에 납품해 왔고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국산화 부품을 사용하면 국고절감에 따른 무역적자해소, 중소기업의 보호, 부품의 유지·보수 및 신속한 조달이 가능한 등 부대효과가 막대하리라 판단함.

○문제는 지하철공사에서 "현대정공(주)"에 완성품을 발주하면 부품선정 및 부품제작 업체 선정은 제작사에 맡겨져 있고, 제작사가 하청업자를 선정하여 지하철공사에 통보해 오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종결정은 제작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예산의 절감, 부품의 안정적 조달 및 정비·보수의 신속과 원활, 국산품 애용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해소와 중소기업 보호육성 차원에서 처음부터 전동차를 발주할 때 입찰의 조건으로 국산화 대체가 가능한 부품은 100% 국산품으로 대체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발주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5. 소위원회 구성

○위원장: 김중용

○위원: 방효길, 원송희

6. 소위원회 심사내용(소위원장: 김중용)

○본 청원건에 대해서 그 동안 조사한 바로는

- 민원인 측에서는

- 지하철4호선 전동차에 들어갈 전동차용 제동제어장치(air brake)부품 사용에 있어 현대정공 측은 그 동안 납품실적을 무시하고 구입선을 독일의 KNORR사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을 교사시키려는 의의가 있으며
- 한편, 민원인은 상공부의 국산화 자

금을 지원받아 일본의 NABCO사 및 미국 WABCO사와 기술제휴로 제동장치(air brake)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그 동안 지하철 1.2.3.4호선에 운영되고 있는 전동차 제작에 납품, 사용되었고

●또한 최근에 철도청에서 동일노선(과천선)에 운행할 목적으로 발주한 전동차 138량에도 당사제품을 사용하기로 결정되었음에도 “현대정공(주)”측의 신규제작 전동차는 신형직교류 겸용전동차로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제어방식(VVVF SYSTEM)이기 때문에 당사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한편 현대정공측은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입찰시 스웨덴 ABB사와 공동으로 입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ABB사가 부품의 호환성 문제 등으로 브레이크 부품은 독일 KNORR사 제품을 추천하였으며

●원가절감 차원에서 유진기공 제품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독일 KNORR사 제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처음에 민원인이 너무 높은 가격을 요구해 와 기업의 이윤적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본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국산화 제품을 사용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기술축적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무역수지적자를 해소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것이고

—전동차운행중 보수·유지와 부품의 호환성 및 안정적 공급이 순조로울 것이며

—장차 예상되는 고속전철 차량 국산화를 위한 기술축적 및 고용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한편, 전동차 발주의 과정을 조사한 바 지하철공사에서 전동차메이커에 완제품을

발주하고 부품선정 및 부품제작 업체선정은 제작사에 맡겨져 있어 제작사가 하청업체 및 부품조달 업체를 선정, 지하철공사에 통보하여 승락을 얻게 되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종결정은 제작사에 맡겨져 있어 제작사는 이윤추구를 위하여 보다 값싼 부품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끝으로 소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특정기업의 특정부품을 납품하도록 하거나 특정기업에 특정부품을 사용토록 강요할 수는 없는 바, 일반적으로 국산화 부품이 가능한 제품은 국내 중소기업 보호·육성 차원에서 발주처(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지하철건설본부가 발주할 때 국산화 대체가 가능한 부품을 이용하도록 입찰에 조건을 붙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

7. 심사결과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원회 전체의견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8. 소수의견 : 없음

의견서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구조 형태를 산업구조 고도화에 발맞추어 수출에 있어 부품의 국산화를 이루지 못하고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고도성장을 뒷받침할 기반기술이나 부품기술 축적없는 기술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소재부품의 평균 수입 의존도가 45%에 달하여 완제품 수출시 부가가치의 45%를 외국에 되돌려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무역수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는 자체기술개발보다는 선진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것이 훨씬 실리적이란 안이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차 제작에

있어서 국내 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기술
축적과 자동차 운행중에 발생할 보수 및
부품교환의 신속성과 안정적 공급이 순조롭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산화 대체 가능
한 부품은 국산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서울시 산하 자동차 발주처(서울특
별시 지하철공사, 지하철건설본부)는 자동차
를 발주할 경우 국산화 대체가 가능한 부
품을 엄격하게 선정하여 제작업체로 하여금
국산화 대체가능 부품을 사용토록 입찰시
조건을 명시해야 할 것이며

○대기업인 제작사가 우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여 외국회사의 부품을 사용하여 국내 중
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우(愚)를 범하지 못하
도록 제작사가 부품납품 업체를 선정할 경
우 발주처가 국산화 대체가능성 여부를 판
단하여 최종적 결정권을 가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副議長 趙貞順 오늘로써 5日間으로 運營된
올해의 첫 臨時會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會期는 93年度 市政運營方向을 살
펴보고 論議하는데 그 意義가 있었다고 봅니
다. 本會議와 常任委員會에서 議員 여러분들
의 느끼신 事項을 토대로 올해의 議政活動이
보다더 內實있고도 生産的인 方向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
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42分 散會)

○出席議員 95人

- | | | |
|-------|-------|-------|
| 李永鎬 | 金 璨 會 | 鄭 興 鎮 |
| 沈 相 一 | 金 吉 原 | 車 奉 五 |
| 吳 基 昌 | 李 今 龍 | 張 汶 龜 |
| 崔 鍾 德 | 洪 溱 株 | 吳 世 根 |
| 金 亨 根 | 朴 光 勳 | 趙 貞 順 |
| 申 尙 澈 | 孫 允 準 | 俞 相 根 |

- | | | |
|-------|-------|-------|
| 權 光 澤 | 崔 鍾 根 | 金 泰 雄 |
| 李 永 輔 | 崔 相 懨 | 李 載 鎬 |
| 裴 丁 洙 | 李 文 光 | 具 齊 南 |
| 林 翼 根 | 崔 丁 植 | 白 中 元 |
| 朴 永 植 | 崔 浩 浩 | 方 孝 吉 |
| 尹 鎮 商 | 崔 沆 洛 | 朴 仁 浩 |
| 趙 熙 濬 | 李 永 和 | 李 鍾 爽 |
| 朴 尙 東 | 金 錫 判 | 文 一 權 |
| 金 順 愛 | 白 懿 宗 | 朴 泰 源 |
| 全 潤 杓 | 金 壽 漢 | 梁 元 模 |
| 沈 揆 辰 | 卓 炯 春 | 禹 昶 仙 |
| 李 基 烈 | 劉 起 鍾 | 權 純 直 |
| 權 赫 柱 | 李 秉 直 | 金 東 洙 |
| 權 會 榮 | 金 箕 英 | 金 昌 學 |
| 韓 仁 洙 | 林 承 后 | 張 柱 昊 |
| 朴 禧 柱 | 朴 夏 榮 | 金 寅 東 |
| 金 容 一 | 金 炯 奎 | 申 龍 吉 |
| 孟 今 龍 | 曹 相 彩 | 金 禹 仲 |
| 崔 明 鎮 | 金 洙 福 | 李 迎 春 |
| 吳 柳 根 | 李 載 震 | 姜 晶 錫 |
| 李 聲 九 | 李 丁 煥 | 白 昌 鉉 |
| 李 秉 守 | 李 翰 好 | 崔 世 和 |
| 趙 文 晉 | 金 鍾 雄 | 丁 寅 燮 |
| 李 敬 雲 | 廉 東 秀 | 李 汪 烈 |
| 郭 壽 榮 | 趙 石 萬 | 金 成 奂 |
| 林 東 奎 | 金 錫 浩 | |